VOICEYE voiceye.com

##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무료 안마 시연 및 점자명함 갖기’ 행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P&G는 ‘무료 안마 시연 및 점자명함갖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총 10명의 시각장애인 헬스키퍼(health keeper)가 한국 P&G 임직원 50여명을 시술했고, 50여명의 직원이 2,500여장의 명함에 점자를 찍었습니다. 안마를 받은 한국 P&G 직원들은 “정말 개운하다, 계속 받으면 좋겠다”라며 큰 호응을 보였고, 헬스키퍼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의 우수성을 알리고, 헬스키퍼의 고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ICEYE voiceye.com

##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안내할 때 아니면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자리를 떠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말없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누구나 허공에 대고 이야기 하게 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리를 비우는 당사자가 말없이 일어섰다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변사람들이라도 주위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5권 4호 통권 105호**

2009년 4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룸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시계방향 : 1.점자명함갖기 행사에서 점자명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이노근 노원구청장
2.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
3.CSUN Conference에 전시된 보조기기
4.헬스키퍼의 안마를 받고 있는 한국P&G 직원

VOICEYE voiceye.com

# 손으로 보는세상

2009. April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21조 3항의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조항을 ‘규제일몰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재검토 기한으로 설정된 5년 내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로서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폐기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계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장차법의 규제일몰제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결과 정부는 3월 13일 “수화통역 등의 장애인 시청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규제일몰을 적용 제외 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방송뿐 아니라 출판, 영상, 통신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차법 제21조를 개정해야 합니다.